

# 고해소(告解所)

백창현

## #1 성당 안

합창하는 소리와 함께 기도하는 소년의 작은 두 손이 화면에 나타난다. 또박또박 음을 쫓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입과 맑은 눈을 카메라가 C.U하며 보여준다.

합창은 계속되며 두건을 쓴 노파가 고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하는 노파의 모습과 경건해 보이는 고해소 안의 신부 얼굴이 번갈아 가며 보이며 고해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나오고, 소년이 다음 차례로 들어간다. 소년이 자리에 앉고 합창은 끝이 난다.

## #2 고해소

신부는 고해를 들으며 종이에 끄적거리는 버릇이 있어서 펜을 쥐고 있다.

신부 : 죄를 고하세요.

요한 : 저는 친구의 물건을 훔치고 회개했는데 며칠 전에 또다른 친구를 때렸어요.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신부 : 그 후에 친구에게 사과를 했지요?

요한 : (대답 없이 울먹거리기 시작한다.)

신부 : (종이에 끄적끄적 ‘친구를 때렸다.’라고 쓴다.) 성경...에서는.....라고 하였습니다.  
....을 읽고 잘못을 반성하세요.(몇 장 몇 절이라고 종이에 쓴다.) →성경구절 찾아서 다시 쓸 것.

요한 :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신부님께 인사를 하고 고해소를 나온다.)

### #3-1 성당 안

고해소를 나오는 요한은 언제 울먹였냐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는다.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앉는다. 그리고 청년기 요한의 목소리로 NAR이 흐른다. NAR이 흐르며 요한은 입가에 웃음을 띤다.

요한의 NAR - 나는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한 적도, 벌레 한 마리를 죽인 적도 없었다. 단지 난 고해소 안에서의 거짓을 즐겼다. 고해소는 나의 가면놀이터였다. 그 곳에 들어가면 규칙에 순종하며 착한 인간인 나는 거짓, 깡패, 악마의 가면을 쓰고 놀았다. 고해를 끝내고 문을 나설 때면 나는 다시 가면을 벗고 사람들 속으로 숨어들었다.

### #3-2 성당 안, 9년의 시간이 흘러 성당은 이전보다 조금 낡은 모습이다.

어린 요한의 웃는 입이 화면이 비추면서 청년(19세)이 된 요한의 웃는 입모양이 O.L된다. 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요한은 젊은이가 되어있다. 예배가 시작되며 찬송이 흐른다. 젊은이가 된 요한은 여전히 착실하고 말쑥한 외모를 한 채 앞줄에 앉아 경건하게 예배에 임하고 있다. 다시 고해의 시간이 되고 요한은 고해소로 들어간다.

요한이 앉았던 자리에 놓인 두 차례의 살인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이 C.U된다.

신문기사 - 일주일 내에 두 차례의 살인, 사체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수십 차례 찢린 채로 발견되었다.

### #4 고해소

이전보다 늙은 신부의 모습, 하지만 여전히 펜을 끄적이며 앉아있다.

신부 : 죄를 고하세요.

요한 :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않는다. 어두움 속으로 요한의 웃음 띤 입이 살짝 보인다.)

신부 : 어떤 일이든 주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요한 : 신부님, 저는 제 자신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신부 : 큰 죄를 지었나요?

요한 : 제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크게 울기 시작한다.

신부 : 모든 죄를 고백하세요. 회개를 통해 당신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 :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부의 놀란 얼굴이 보인다. 신부는 반투명의 유리를 통해 요한을 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간다. 하지만 신부는 요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

반대편에 있는 요한은 신부의 얼굴이 반투명 유리 가까이로 다가온 것을 보며 소리 없이 웃음을 짓는다.

요한 : (계속 울먹이며) 제가 두 명이나 죽였습니다. 왜 사는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도 힘들었고, 나를 지켜보는 눈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나약한 저의 모습이 싫었어요. 전 단지 그런 것들이 싫었을 뿐인데, 제가 그들을 찢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신부 : (반투명 유리를 통해 요한을 보려고 애쓴다.) 형제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하였으니..... (머뭇거린다.) 당신은, 아니 형제는 큰.. 큰 죄를.. 어서 경찰에게 당신의 죄를 고하고..

신부는 쥐고 있던 펜으로 ‘경찰에게 죄를 고하라.’라고 썼다가 펜으로 두 줄을 긋는다. 화면 전개가 급격히 빨라지며 신부의 손은 ‘주님은 용서를 해 주실..’이라고 썼다가 펜으로 긋는다. 긴장감이 감도는 음악이 흐른다.

신부 : 이제 당신은 주님 앞에 당신의, 아니 형제의 죄를 고하였으니 그 죄는.. (펜으로 경찰에게 라고 쓴다.) 경찰에게 자수하여야 합니다.

요한 : (격앙된 목소리로) 하지만 저는 그들이 무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어두운 밤에 그들은 단지 내 앞에 걸어가고 있던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만 같고, 그들만 없으면 내가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들을 죽였던 것이었지요. 지금 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님 앞에 제 죄를 고하고 용서를 얻고자 이곳에 온 것입니다. (말을 마치며 소리 없이 웃는다.)

신부 : (마음을 가다듬으며) 형제의 고백성사로 형제는 죄로부터 자유를..(‘자유를..’이라고 썼다가 지운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법의 심판을 따라 죄값을 치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이 위에 ‘새로운 삶’을 적는다.)

요한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어 고해소 위쪽 유리의 낡은 구멍으로 밀어 넣는다. 시계가 신부의 펜 옆에 떨어지는 장면이 C.U 된다. 신부는 시계가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란다. 그 시계는 유리가 깨진 채 3시 37분에 멈춰있다.

요한 : 이 시계는 그가 차고 있었던 시계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걸 챙겨서 달아났어요. 이걸 제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물이고 이것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신부는 그 시계를 긴장된 표정으로 바라본다. 귀한이 어둠 속에서 칼로 누군가를 찢는 장면이 빠르게 지나간다. 비명소리, 둔탁한 것이 때리는 소리와 함께 다시 신부는 정신을 차린다. 신부, 시계를 집어 들고 다시 요한이 있는 쪽으로 밀어 넣는다. 시계가 낙하하는 장면이 잡히다가 시계가 땅에 닿기 전에 화면은 요한의 웃는 얼굴로 바뀐다. 웃는 얼굴이 계속 화면에 잡히며 ‘툭’하고 시계가 탁자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신부 : (긴장한 목소리) 그 시계를 갖고 경찰에게 찾아가세요. 그것은 당신이 죄를 범한 증거입니다...

요한 : (말을 끊으며) 전 그리고 어젯밤, 또 한 번의 살인을 저질렀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웃음을 띄며 반투명 유리를 통해 신부의 모습을 본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신부의 모습..

잠시 침묵이 흐르고 요한의 얼굴에는 계속 웃음이 흐른다. 요한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간다. 문을 열고 나온 요한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다.

## #5 성당 안 단상

어둑어둑한 예배당 안에 신부가 혼자 의자에 앉아있다. 신부의 독백이 시작된다. 화면은 성당 안의 사물들을 비추며 간간히 신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신부의 독백 - 나는 그를 모른다. 아니 나는 그를 알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고백성사를 하던 아이이다. 그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예전에도 친구를 때렸다고 나에게, 아니 주님께 고해를 했던 형제... 옆집의 개를 삽으로 때려 죽여 몰래 묻어두었다고 말했던 그 아이이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양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고백을 통해 죄를 뉘우쳤음을 들었고, 그에게 밝은 세상과 사후를 약속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이야. 그는 내일 해가 뜨고, 주일이 되면 다시 나에게, 아니 주님께 고백성사를 하러 오겠지. 경찰에게 알려야 하는 걸까? 난 그의 말을 듣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는..

신부의 독백이 흐르는 동안 성당 안과 신부를 비추던 화면에 요한이 성당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더해진다.

요한 : 신부님.

‘쿵’하는 효과음 함께 신부가 정신을 차린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던 신부는 요한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다.

신부 : 아니, 요한이 아닌가. 이 시간에 어떤 일로...

신부는 요한을 바라보지 않고 식은땀을 닦는다. 요한은 그런 신부의 모습을 보며 살짝 웃음을 짓다가 다시 무표정하게 바꾼다.

요한 :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웃집에 뭇 좀 갖다 드리고 오늘 길에 신부님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들렀습니다.

신부 : (놀라며) 아니, 자네는 얘기 못 들었나? 최근 마을에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혼자 다니다니...

요한 : 에이, 신부님도 걱정은..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요. 그리고 우리 집이나 성당과는 좀 먼 거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신부 : (요한을 덩석 잡는다) 먼 곳이라니? 그 일은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그 범인은!

신부는 말을 멈춘다.

요한 : (자신을 잡은 신부의 손을 살짝 밀어내며) 범인이 뭐요?

신부 :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지금 마을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신부는 의자에 기대앉으며 땀을 닦는다. 신부의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요한 : 신부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좀 들어가 쉬세요.

신부 : 괜찮아. 곧 괜찮아 지겠지.

요한이 코트를 벗어 신부에게 입힌다.

신부 : (살짝 웃으며) 괜찮다니깐..

요한 : (웃으며) 신부님이 아프시면 내일 예배는 누가 해요. 그렇게 걸치고 계시지 마시고 입으세요.

요한은 자신의 코트를 신부에게 바로 입혀준다.

신부 : 저쪽에 커피가 있네. 한잔 갖다 주게나. 자네도 한잔 마시고..

요한 : 예

요한은 커피를 들고 구석의 찬장으로 가서 커피포트로 찾는다. 신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의자에 몸을 기대 채 편안히 누우며 코트 주머니 안에 손을 넣는다.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는 손, C.U. 신부의 얼굴이 C.U 되고 약간의 표정변화가 생긴다. 긴장감도는 음악과 함께 주머니에서 손이 나온다. 손에는 시계가 쥐어져 있다.

신부는 요한을 바라본다. 요한은 등을 돌린 채 커피포트를 켜고 있다. 요한이 돌아섬과 동시에 신부는 코트 속으로 시계를 껌싸게 넣는다.

요한 : 커피포트가 많이 더러워졌네요. 한번 닦아서 끓였어요. 곧 커피를 드릴게요.

신부 : (놀라운 표정으로 요한을 바라본다.) 너.. 너..

요한 : 예? 신부님 왜 그러세요.

요한이 다가오자 신부가 깜짝 놀란다. 요한은 급하게 뛰어와 신부를 붙잡는다. 자기도 모르게 뒤로 쓰러질 뻔한 신부를 요한이 부축한다.

요한 : 신부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어서 들어가세요.

신부 : (정신을 차리며) 그래, 일단 들어가야겠구나.

신부 성급히 코트를 벗어 요한에게 준다. 신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요한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요한 : 커피는 어떻게..?

신부 : 커피는 안 되겠네, 들어가 쉬어야겠어.

요한 :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신부 :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서도 갈 수 있네. 괜찮아.

신부가 요한을 힐끔힐끔 보며 빠른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신부는 문을 막고 서서 눈을 크게 뜨고 좌우를 두리번거린다.

요한은 밖에 서서 자신의 코트를 손에 쥔 채, 사색이 되어 있다. 그는 코트 속으로 손을 넣고 시계를 만지작거린다. 시곗줄이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요한은 코트를 입지 않고 책 돌아서 성당을 나선다.

## #6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화면은 정신없을 정도로 요한의 걸음걸이와 얼굴, 코트를 움켜쥔 손 등을 번갈아가며 비춘다. 점점 변화 속도가 빨라지며 NAR이 흐른다.

요한 NAR - 신부는 내 시계를 알아챈 거야. 시계를 꺼내 본거야. 분명히! 그럼.. 그럼.. 신부는 내가 살인자인줄만 알겠지? 난 단 한 번도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야. 신부는 시계 때문에 내가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게 될 꺼야. 내가 살인자라는 건 순전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그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나를 살인자라고 알고 있겠지? 내가 경찰서로 달려가 살인자라고 말하라고 하겠지? 난 살인자가 아닌데. 날 살인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신부 그 놈만 내가 사람을 세 명이나 죽인 연쇄살인마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고 신부는 고해소 속의 그 거짓말쟁이가 살인자라고 알고 있단 말야. 신부만이.. 이 세상에서 신부만이 나를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어!!

F.O.

## #7 다음날 고해소

요한이 들어와 앉는다. 신부는 고해소로 들어오는 누군가의 실루엣을 긴장한 얼굴로 지켜 보고 있다. 그의 종이 위에는 ‘요한, 요한, 요한’이라고 적혀있다.

신부 : (긴장한 목소리로.) 죄..죄를 고하세요.

요한은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신부는 요한임을 눈치 채고 펜을 움켜쥔다.

신부 : 당신이군요.

요한 : 신부님, 제 죄값을 치르기 전에 신부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 밤에 신부님을 만나 뵙고 신부님과 함께 죄의 대가를 치르러 가겠습니다. 저를 위해, 아니 주님을 믿는 어린 양을 위해 신부님, 신부님이 필요합니다.

신부, 긴장한 표정. 땀이 난 손을 종이에 닦는다. 요한이라는 글자가 번져나간다.

신부 : 오늘밤...

신부는 종이에 ‘오늘밤’이라고 적는다. 땀에 젖은 종이에 적은 글씨가 번진다.

신부 : 함께 가겠네. 요한.

요한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무언가를 결심한 표정이 화면에 비춘 뒤, 시계를 짝 켜 손이 서서히 C.U되며 3시 37분을 보여준다.

## #8 어두운 밤 가로등이 한 개만 켜져 있는 공터

한 남자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긴 코트를 입은 채 서있다. 그의 숨에 따라 입김이 새어나오고 있다. 추운 날씨 탓에 마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푸른 등불 아래 서 있는 남자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

그 남자를 향해 또 다른 한 남자가 다가온다. 둘은 나란히 마주 선다. 누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화면. 신부의 목소리가 들린다.

신부의 목소리 - 나는 어린 시절, 한 아이가 내게 했던 고백성사를 기억하네.

두 남자중 한 남자가 서서히 걷기 시작한다.

신부의 목소리 - 그는 나에게 물건을 훔쳤다고 이야기했지.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자신이 누구를 때렸다고 이야기했어. 그 아이는 그 후로도 주일이면 찾아와 죄를 고했지. 그 아이는 계속 죄를 저질렀어. 결국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더군. 내가 무엇인지, 내가 신의 중개인으로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죄를 신께 이야기하고 회개하는 이 아이는 고백성사를 통해 진정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한 남자가 숨을 길게 내쉰다.

신부의 목소리 - 아이는 벌써 청년이 되었고, 그는 계속 나쁜 짓을 했어.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고백성사를 통해 회개하였고.... 그게 정말 회개일까, 내가 이 어리석은 청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었을까. 어쩌면 내가 미리 바로잡아주었어야 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잠시 말이 멈추고 둘 다 걸음을 멈춘다.

신부의 목소리 - 이렇게 큰 죄를 짓기 전에 내가... 그래 주님이 아닌 내가 혼을 내줬어야 했을지도 몰라.

한 남자가 가로등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간다. 등을 보인 채 하늘을 향해 입김을 뿜는다.

신부의 목소리 - 결국 오늘 너는 죄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요한.

갑자기 한 남자가 다른 한 남자를 내리친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억’ 하는 외마디 비명을 낸다. 둔기를 땅바닥에 집어 던진다. 육중한 철이 바닥에 떨어져 튕기는 소리가 들리며 남자는 쓰러진 남자를 칼로 마구 찌른다. 그 화면 위로 요한의 목소리가 흐르며 점점 F.O.

요한의 목소리 - 신부만이.. 이 세상에서 신부만이 나를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어!!